광 그림

40

1954. 3

시사만화잡지

활살

Title: Hwalssal
No. 40, March, 1954
THE LIBRARY OF CONGRESS
DIVISION OF ORIENTALIA
Copy
064 R
MAR 31 1955
RETURN TO
THE LIBRARY OF CONGRESS
DIVISION OF ORIENTALIA
Please return to the Korean Unit

당과 정부와 수령께서 베풀어주는 계속되는 배려에 증산으로써 호응하자!

최 한 진 그림

—가급금 을받는다! 석탄값이 내린다! 값싼생선이 매일배급된다!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의 공급이 더 원활해진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와 김일성원수의 배려에 보답할테야! 백배천배 일할테!

-암 말할것있나! 기운이 벗쩍벗쩍 솟구치는걸 뭐!

내각결정 32호로써 4월1일부터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기본임금의 평균 25%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지불하게된다 난방용 석탄 국정 소매가격은 20~30%인하된다 식료품과 공업상품들도 원활히 공급하게되고 도시주민들에게 소채 조미료등을 정상적으로공급 하기위하여 국영소채기지를 설정운영할데 대한 조치들이 강구되였다 또한 내각결정 43호로써 도시 및 농촌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수산물 공급사업이 개선강화된다 평양시의 로동자 사무원합숙들에는 매일평균 1인당 100그람의 선어가 공급되며 공급대상30명이상이 있는식당에는 배달까지하게된다 교통성에서는 렬차에 랭동차를 련결하여 매일같이 신선한 수산물을 운송한다 소매가격은 평균 35%이상 인하된다

새로지은 집들에서

새로 지은 집들이 아담하게 자리를 잡았다 폭탄의 웅뎅이를 메우고 거리 거리는 깨끗이 정리 되여가고 있다 햇살이 솟자 근로자들의 힘찬 발거름이 공장을 향하였다

『참! 양복저고리도 이쁘구나 신도 발에딱 맞고』

봉순이는 만족한 눈초리로 소년단 모임이 있다고 일찍부터 서둘면서 학교에 나가는 그의 딸 춘자를 바라 보았다

『어머니 난 좋아요! 어머니 것도 이뻐요』

춘자는 책가방을 멘 어깨를 들먹이며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새로 지어 입은 양복소매를 툭툭 털면서 대답한다

봉순이는 직장상점에 들어온 양복과 운동화를 춘자에게 꼭 알맞는 것으로 골라 사고 또한 자기것도 샀었다

『춘자야! 이것 누가 만드는지 알어?』

『아이참 그건 몰라요? 어머니처럼 공장에 다니는 로동자들이 만들지요』

봉순이는 바쁘다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원수들의 맹폭에 페허가 되였던 방직공장들이 벌써 복구되여 제품이 나온다 당과 정부와 수령의 따뜻한 배려로 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윤택해 간다 이모든 사실은 봉순이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을수 없었다

× ×

봉순이는 다급히 옮기던 발거름을 멈추고 자기들의 일터인 공장과 거리를 바라 보았다

전쟁이 일어나자 봉순이의 남편은 전선으로 달려 나갔었다

『자! 그러면 승리하는 날 까지………』

『어서 떠나세요 모든것은 다 잘알고 있어요!』

봉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후 봉순이네의 집은 원수의 폭탄에 잿뎀이가 되였다 늙으신 어머니도 폭격에 돌아갔다……

그러나 봉순이는 남편의 약속을 지켜 그 전보다 몇배 몇10배 일하였다

정전후부터 그는 새로 지은 주택에 들어 새 살림을 꾸미며 더욱 눈부시게 싸우고 있다

『어머니! 인젠 공장에서 훌륭한 물건이 많이 나오는가 봐요』

춘자는 어머니 앞에서 걸어가다가 방긋 웃으며 말한다

『그럼! 천 고무신 과자 같은것이 값싸게 더욱 많이 나와! 그리고 우리들은 가급금 까지 받게되여 물건을 소용될 때마다 더 많이 살수있어!』

봉순이는 귀여운 춘자의 눈동자를 내려다보며 웃음띤 얼굴로 대답하였다

× ×

봉순이는 승리자로서의 기쁨을 느끼면서 더욱 억세게 싸울 결의에 가슴이 들끓었다 그순간 그의 눈앞에는 지금도 여전히 조국보위의 초소에 서있는 남편의 얼굴이 가까히 보이는것 같았다

봉순이는 높은 굴뚝에서 뭉게 뭉게 피여 오르는 공장을 향하여 재빨리 발거름을 옮기 였다

원 철

3.8 국제부녀절에 대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결정을 환영하는 공화국녀성들!

오늘 공화국 녀성들은 3.8국제부녀절에 제하여 전체 녀성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더욱 힘찬 로력 투쟁에 궐기할것을 호소한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결정을 열렬히 지지 환영 하고 있다

공화국 녀성들은 로동당과 공화국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두터운 배려에 더욱 고무되면서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한 애국적 투쟁에서 새로운 모범을 보이고 있다

× × ×

로동 녀성들은 영웅적 조선로동계급의 영예를 간직하고 선진 생산 기술을 부단히 섭취하며 증산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윤정현동무가 사업하는 공장내 윤시호 녀성브리가다원들은 로동절서를 강화하며 기대 담당제에 의하여 기대의 실동률을 높이는 한편 제품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한 표준 조작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호상 경쟁운동을 전개하여 직포 생산량을 매일 118%로 초과 실행하며 직포의 질을 종전보다 훨씬 제고 하고있다

× × ×

수 많은 농촌 녀성들은 전시에 세운 로력적 위훈을 전후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 빛내기 위하여 온갖 애국적 헌신성과 창발적 열성을 다하고있다 그들은 전국 다수확 농민 열성자 대회의 호소에 열렬히 호응하며 파괴된 관개 시설들과 농기구들을 급속히 복구 수리하며 금년도 영농사업을 위한 준비를 원만히 보장하며 경지면적을 개랑 확장하며 선진 영농기술을 광범히 전개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일층 높임으로써 국가에 많은 식량과 공업 원료들을 공급하기 위하여 힘차게 나서고 있다 평남 강서군 거창리 농민녀성들은 다수확농민 리옥례녀성을 선두로 봄보리 적기 파종에 궐기하여 1백여반보의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함북 어랑군 룡전리 열성농민 변옥순 녀성은 부락에서 선참으로 퇴비반출을 끝내고 지금 록모판 락종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평남도 은산군 리정실동무는 양잠사육에서 온갖 창의창발력과 로력적 열성을 다하여 잠종 한장에서의 평균 수확 17~18키로로 부터 35키로까지 높이는 놀라운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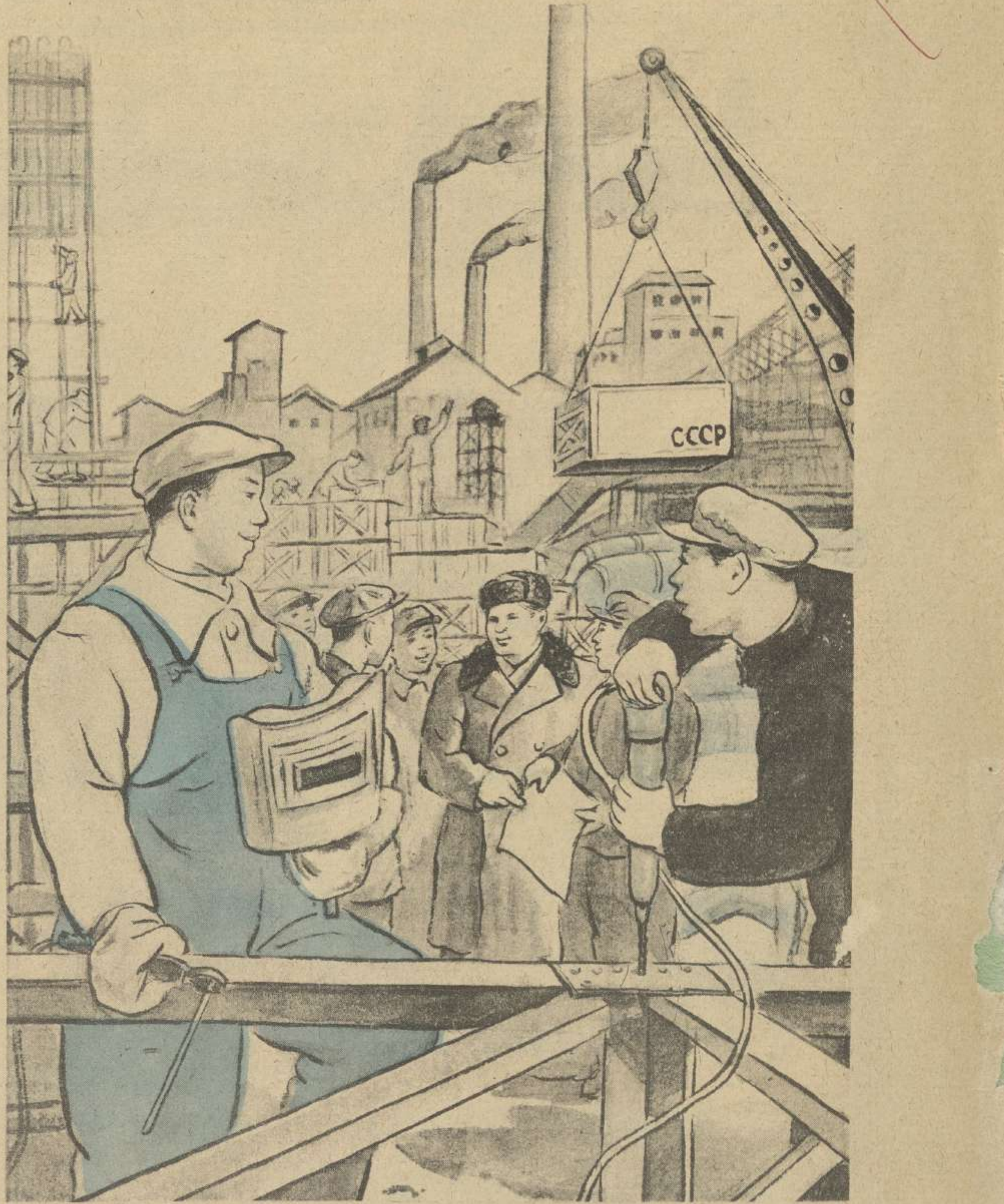
× × ×

공화국 녀성들은 현재 12만 6천 8백명의 녀성들이 교원으로서 일하고 있다 또한 9천 270명의 녀의사 간호원이 있으며 663명의 녀성이 문화 예술 일군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이렇듯 인류의 항구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여성들의 권리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민주 녀성들과 어깨를 겨누고 용감히 전진하는 공화국 전체 녀성들은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 및 전세계 평화 애호 민주녀성들의 열렬한 지지 성원하에 정의의 조국 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것 처럼 전후인민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도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 굳은 결의에 불타고 있다

리 정 자

위대한 쏘련의 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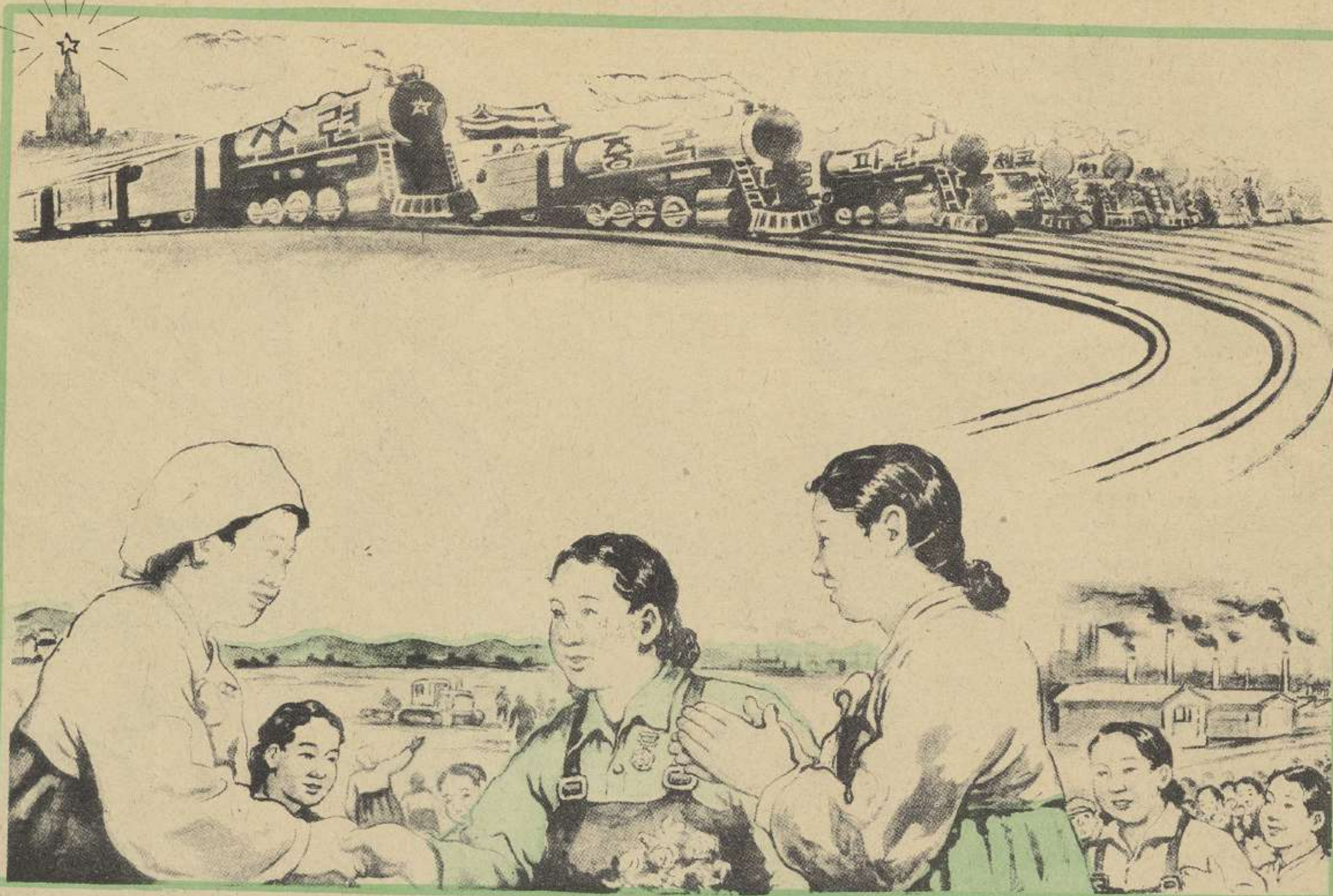


최 한 진 그림

—저것보오! 공장건설 모습이 날마다 달라지고 있소 우리 자신들이 하고있는 일이지만 놀라지 않을수없소!

—쏘련기술자들의 원조를 받으며 선진 쏘련의 기계로 일하는데 어림 있겠소!

녀성들의 국제적 명절



최 일 나 그림

—위대한 쏘련및중국녀성들과 인민민주주의 여러나라들의 녀성들이 직접 우리들을 원조하여 주고 전세계 민주녀성들이 우리의 편에있으니 전후복구건설 투쟁에서도 더욱 힘차게 싸웁시다

—아무렴은요! 우리의 명절을 승리를 다지면서 기념합시다

오늘도 기대 앞에서

따사로운 햇살이 내려 쪼이는 평양방직 공장구내——

「부—웅」점심시간을 알리는 싸이렌 소리가 울렸다

얼마후에는 점심식사를 끝마친 직포공 로동자들이 정원에 밀려 나왔다

라디오의 음악에 마춰 노래 부르는 동무들! 그리고 한거름 두거름 거닐며 기술습득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는 동무들!

모범로동자 금순동무도 명랑한 얼굴로 노래를 부르며 많은 동무들이 휴식을 즐기는 정원으로 걸어 나왔다

『금—순—동무! 요지음 자미가 콩 뛰듯 하겠구나!』

신혼 생활중인 금순이를 놀려대는 동무들의 비꼬은 목소리가 울렸다 금순이는 뛰는 거름으로 닥아오자

『아이!』하고 놀려 대는 동무를 두다리려는 듯이 불끈 주먹을 추겨 들어 보이고서『호 호… 』하고 웃어 댔다

모인 동무들은 곧 금순이를 둘러싸고 한바탕 이야기 꽃이 벌러졌다

『롱담은 그만하구 그런데 결혼생활이 어떻니 응?』

『결혼생활? 그럴듯해 어쩐지 마음도 안정되고! 난 야 그이 하고도 경쟁을 체결하지 않았겠니 그랬더니 저녁마다 총화를 지을때는 굉장해!』『누가 이기구 있어? 그이 겼을 때는 막 야단 하 겠구나?』

『그래 그리고는 또 서로 격려도 그럴듯이 하 지』

모두들 어깨를 툭툭치며 웃었다 금순이도 같이 웃고 나서 말을 이었다

『가정살림도 날 지치잖게 보살필려니 아닌게 아니라 좀 짐이 커진것 같기는 해』

금순이는 자기가 결혼한 후도 여전히 공장에서 모범적으로 일하며 한편 가정도 남부럽지않게 꾸리는 참된 생활의 이모저모를 말하였다

『난 금순이가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 공장에서 6 대기 직포공을 빼았기는 줄 알았어』

『아니야 나도 상당히 생각했어 초튼 부모님들이 막 선동을 하지않어 야 그만해라 시집가면 아들 낳고 세간사리 잘 해야 상책이지』 자꾸만 어러지 않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좀 뒤숭숭 했었지 거전그만두게 뻔했어!』

『사실이야 그러길래 흔히들 결혼하면 공장을 그만 두군하지않니』

『그런데 말야 결혼식할때 내 좀 쉬지 않았어 그랬더니 첫날은 몰랐는데 다음날 부터는 아주 심심 무자미야! 아 글쎄 남편이 일찍 출근한다음 이것 저것 하고나서 조용히 생각하노라니 내가 다루던 기계생각이 몹시 떠 오르겠지 그래서 나 혼자서 평소 기계 다루듯이 손흉내를 내어 보았어

『하하……호호…』

금순이가 그때의 모습을 보이노라고 손 흉내를 멋지게 하자 뢰다다시 한번 웃어대었다

『아니 우리들 생각은 영 아니나고?』한 동무가 일부러 시무룩 해 보이면서 이렇게 물었다

『물론 동무들 생각도 간절하였지!』 『글쎄 그렇겠지!』 약속이나 한듯이 모두다 고개를 고덕이 였다 그리고 며 이야기를 들려 달라는 시선으로 금순이를 응시했다 금순이는 자기가 결혼한 후도 여전히 직장을 지 키게 된 경유를 깡그리 말하기시작했다

× ×

금순이는 3 년에 걸친 전쟁기간 하로 한날 아침같이 자기의 손을 직포기앞에서 재련시키면서 1953년 부터는 6대의 직포기 주인으로 되였다 농민의 딸로서 자란 그가 6 대기의 직포공이 될때까지에는 영웅적 조선 녀성이 가져온 그런 로력을 잠시도 쉬여보지 않았었다

남보다 먼저 출근하며 기계일을 배웠고 저녁이면 늦게 까지 먼저들어온 동무들의 기술지도를 받았다 금순이는 당과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씩씩히 싸우며 기대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러한 금순이의 아름다운 근로 정신은 계속 직장을 튼튼히 지키며 조국이 부르는 길에서 자기의 능직생산 책임량을 하루에 170% 식 초과 완수 하고있었다

그런데 금순이와 같은 직장의 모범로동자 정호와결혼한 얼마후의 일이 였다 금순이는 직장에서 퇴근한 남편을 반가히 맞이하려 나 섰었다 금순이의 남편정호는 웃는 낯에 더욱 희색이 만 면하여 물어와 『오늘은 몇% 생산 했을지 마춰봐 요?』하고 말문을 열었다 금순이는 아양대는 몸부림을치며 「72%」고의로 나추어 대답하였다 『뭐? 날 그렇게 바뻰 아니봐?』『그럼은요!』『정신 나갔소 그때에 가까운 130%! 알만 하오』 『나도 공장에 나가면 그만큼은 할수있는데』 『…………』 정호는 금순의 말을 듣자 불연듯 복잡한 생각이 머리속을 교차해 지나감을느끼면서 금순이의 낯을 유심히 살피며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욱고 저녁을 끝마치자 진지한 토론이 벌려졌다

『당신은 가정생활에 벌써 흥미를 잃은 모양이군요?』

『어째서요? 난 만족해요 그러나… 』

『그러나! 절반즘이란 말이죠?』

『글쎄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였다는 오직 그 한가지 리유로 직장을 떠난다는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꺼리끼워요 그전에 회의에서 토론하면서 끝까지 기대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던것이 마구 머리속에 떠올라 오는걸요 우리 결혼생활을 더 행복스럽게 하기위해선 내가 계 속해서 직장을 다니는게 어때요』

『글쎄 난 반대한 적은 한번도 없지않소』

『그러니까 말요 혁명적 실천없는 혁명적 리론이 업지 않아요』『그렇지만! 당신의 부담이 너무 무거워』

『아니예요 지금 우리들이 서로 생활을잘 조직 하는데 달렸어요 또 다소 부담이 커진다 해도 당신도 초과 실행%를 높이고 나도 높일때 참말로 보람있지 않어요 힘들여 일해서 그 성과가 더욱 커질때 어째 힘을 아끼겠어요』

『좋소 당신이 해낼만 하다면 반대없소 계속 같이 공장에 나갑시다 결혼하면 녀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걸 아주 예정된 코—스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얼마전에 초급당 위원장이 웃으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나를 두고 당적 신호를 주는것이 였기도해? 하나 따져볼것은 후에 힘들다 어떻다 일체 하지말것 알지?』

『하이 당신은 사실 그렇지 않지만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면 남들은 꼭 당신때문이라고 말할게야요 당신에게 그런 루명을 나는씌우고 싶지않아요』

다음날 금순이와 정호는 합력하여 부모님을 충분히 납득시켰다 그리고서 가정생활 일과표를 작성하여 부치고 서로 돕고 돕는 따뜻한 마음으로 궂든 젖든 일을 척 트고 나서 어깨를 나란히 기대고 다정스러히 공장안으로 들어 갔었다

× ×

솔깃이 귀를 기우리고 듣고있던 동무들은 금순이의 말에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중에는 금순이가 결혼하면 응당 공장을 그만 두리라고 생각한 동무들도 여럿이 였다 『과연 옳아 우리는 어떤일이 있어도 기대앞을 떠날 수는 없어』

『공장은 우리의 전투장 이거던 전투원이 전투장을 떠날수 없는것과 마찬 가지야』

모여선 동무들은 제가끔 내심 크낙한 결의를 다지며 모두들 감격 하였다

(장 필 순)

승리의 새 봄

승리의 새 봄이 왔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산야에서 새 싹이 움튼다 봄을 맞이한 조국의 방방곡곡에서는 복구건설 투쟁이 더욱 치렬해 가고 있다

새로 건설되는 웅장한 공장들! 현대적 문화도시로 변할 넓고 곧은 시가지 구획선들!

보다 화려하고 보담 웅장한 슬기로운 공화국의 앞날의 모습을 기꺼히 전망하면서 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우리의 강철의 투사들은 힘차게 전진한다

지난날 조국 지킨 이야기 서로 나누며 인민들은 커다란 설계도를 더욱 높이 펼쳐 들었다

승리의 새봄!

수령의 말씀을 받들고 인민들은 공장으로 건설장으로 전원으로 나아간다

농경지는 확장된다

전국다수확열성자대회의 호소에 호응하여 공화국 각지 농민들은 농경지 확장에 힘차게 일어섰다

이곳 김몽룡 동무가 살고있는 안악군 원룡리에서는 갈발을 옥답으로 개간하기위하여 매일 제방 쌓는 사람들로 웅성거렸다 그들은 매일 계획 보다 20%나 더 흙을 날렀다 당우중 조경호 한정산 농민은 자기 계획을 언제나 35%나 초과 수행하고 있다

2월3일부터 시작된 갈발을 논으로만드는 이 공사는 3월15일 현재 벌서 25% 가까히 진척 되고 있다

지금 이곳 농민들은 3월말까지 공사를 반드시 끝낼것을 굳게 결의하고 황무지인 갈발을 옥답으로 개간하는 사업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멀지않아 이곳 원룡리에서는 400여 반보의 갈밭이 커다란 제방에 둘러싸여 기름진 논으로 전환 될것이다

일어서는 남포시

전후 복구 건설 기자재를 만재한 렬차가 련속 남포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역주변에는 세멘트 목재 스레트들 비롯하여 여러가지 건축 자재들이 산을 이루고 있다

위대한 쏘련인민들로 부터 보내온 웅장한 기계들과 공구들을 부리우는 작업이 매일 계속되고 있다

서응선동무가 지도하는 공장에서는 형제적 중국기술자들의 원조아래 복구공사를 빠른 속도로 진척 시키고 있으며 남포부두도 웅장한 모습을 나타내기시작 하였다

화물 부두에는 창고가 세채나 세워졌다

벌써 매일 30여척의 운반선이 부두에 선체를 기대기 시작하였으며 려객선은 벌써 200여명의 려객들을 하루에 세차례씩 지체없이 실어 나르고 있다

멀리 펴쳐진 푸른 바다의 수평선을 넘어 흰 돛대에 바람을 가득 안은 어선들이 련이여 출로하고 있다

남포시를 현대적 도시로 복구 건설할데 대한 기본계획이 승인된 내각결정 제 42호는 남포시 복구건설투쟁에 궐기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로 하여금 무한한 기쁨과 광활한 미래에대한 전망을 갖게하고 있다 그들은 얼마전에 가급금을 받게되고 이제 또다시 자기들의 도시를 웅장하게 복구건설할 내각결정을 받들고 저마다 자랑에 가득찬 건설의욕에 충만되여 있다 앞으로 중앙거리 중심부에는 로동자 구락부가 건설될것이며 건평 4천평방—메터로로 예견하는 국영 남포호텔이현대식3층건물로신 축될것이다

머지않은 앞날에 문화적인 주택 8천여동이 줄비하게 들어 앉을것이며 전등과 수도 시설이 대규모로 확장될것이다

미제 공중 비적들의 맹폭속에서도 불굴의 투지로 자기들의 도시를 지켜온 인민들은 적들의 파괴한 온갖 귀중한것들을 단시일내에 최다 복구할뿐만 아니라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한 현대적 도시들 건설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다 인민들은 이미 2000여 평방메—터의 간선도로를 복구정비 하였으며 19만여 평방메—터에 달하는 시가지 정비 사업을 완료 하였다 이리하여 인민들의 비등된 건설 열의 속에 남포시의 복구건설은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있다

"푸르러"가는"산야"

산 마루턱에는 나무들 심으느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새움이 뾰족 뾰족 내어 밀기 시작한 묘목을 오리 오리 뿌리를 펴서 한대씩 정성들여 심는다 그러고는 꽁꽁 땅바닥을 밟는다 동리 사람들은 논 밭에 두엄을 내는 한편 일부에서는 이렇게 나무를 심는 다

『이산이 바로 원수놈들이 무리죽엄을 당하던 곳이지!』

이때 땀을 흘리며 나무를 심는 조분단 동무를 보며 농맹 위원장 동무가 입을 열었다

조분단동무는 이욱고 머리를 들어 주위의 산들과 그리고 넓은 논밭을 내겨한 눈초리로 바라본다

파릇하게 펼쳐진 논 밭들에는 두엄덤이가 골고루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트락또르 임경소에서는 방금 발가리 준비에 바쁘다 달구지를 멘 역마들도 발을 구르며 달린다

조분단 동무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 짐을 막을수 없었다

× × ×

일시적 적의 강점시기에 적들은 함북 어랑군 소요리에 기어들었었다 어랑천을 사이에 두고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였었다 악귀같은 하늘의 미제 날강도들은 아람들이 나무가 들어선 산들과 마을에 폭탄을퍼 부었다 산과 들은 모다 불에 타 새까맣게 되였다

아군 포진지에서는 겹은 위장이 필요해졌었다 겹은철을 사용하는것이 손쉬운 위장으로 될수 있었다 아군 포병들은 겹은 천이 있었으면 했다 포탄상자와 식사를 나르고 있던 조분단 동무는 불연듯 집으로 달음질쳐 갔다 그는 자기 집의 겹은 이불 걸을 뜯어 가지고 달려왔다

포진지는 곧 위장할수 있게 되었다 화구에서는 련이여 불을 뿜었다 어랑천을 도하 할려던 적들은 더러운 죽엄을 널어놓고야 말았다—

× × ×

『분단 동무 참 용감했어! 바로 그때에 이산이 모다 불타버렸었지! 그러나 우리는 싸워 이겼어! 개놈들을 물리 치고야 말었어! 승리하고 우리 조국을 더 아름답게 복구건설 하게된 오늘 우리의 귀중한 산과 들을 푸른 락원으로 만들어야만해!』

『물론이죠! 우리가 식수 조림을 소홀이 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우리를 원망 하겠어요!』

『암! 좌우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다른건 두말할것도없고 우선 5년 후에는 애기들이산보갈곳이 없을거요!』

『그뿐인가요! 복구건설에 나무가없어선 안되니까요』

조분단 동무와 농맹위원장은 이렇게 말을주고 받으며 정성들여 나무를 심으는데 분망 하다

승리한 조국의 산천! 피로써 지킨 고향! 언덕아래의 펼쳐진 논 밭에서는 전국 농민 열성자대회 호소문을 받들고 한결같이 일어선 농민들이 두엄나르는 달구지 소리가 들려온다 둥섶이에 심은 묘목은 훈훈한 봄바람에 하느적 거리며 단정히 헐을 지었다

『어서 커라! 우리들의 정성을 담고 아람들이 나무로 자라 원수들이 분해운 조국의 산을 새파랗게 물들여라!』

조분단동무는 어린동생에게 타이르듯 이렇게 말하고 나서 수건으로 이마를 닦었다

류 봉 순

공화국 녀성들

오늘 공화국의 정치 경제 문화 각분야에서는 많은 녀성들이 책임적 지위에서 일하고있으며 당과국가와 인민을위하여 충실하게 복무하고있다 박승히 그림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를 통하여 공화국녀성들 속에서는 로력혁신자들이 배출되였고 또 배출되고였다 최한진 그림

공화국의 각 대학들에서는 수많은 녀학생들이 앞날의 훌륭한 간부로서 교양육성되고있다 최한진 그림

「심중」히 짜낸「묘책」

—계획부장동무! 작업기준량을 사정해야겠는데…
손쉽게 얼른해 치울 묘책이 없을까?
—글세요 1자를 4자로 고치면 되지않을까요?
—됐소! 그거 훌륭하우!

최 영 근 그림

가로수들의 호소

봄이 왔습니다 모란봉 비탈에는 영이 개발자구 달래들이 돋아나 귀여운 어린애들이 나물을 캡니다 대동강가에 줄을 지은 수양버들과 그리고 거리에 서있는 가로수들인 우리의 몸통에도 새싹이 움트고 새파랗게 잎이 돋아 나기 시작합니다

원수 미국 양케들과 리승만 역도들을 물리치고 처음 맞는 봄입니다 웅장하게 복구건설되는 영웅의 도시 평양을 보다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우리 가로수들도 원수들한테 재난당한 동무들의 복수를 겸해 봄을 맞아 더욱 억세게 가지마다 잎을 탐뿍 피워 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대단히 불쾌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랍니다 그래도 겨울에는 땅이 얼어 붙어 깨끗한듯 하더니 봄철이 되니 물이 우리의 일부 동무들 주위에 모여 듭니다 그리고 하수도관 터진곳으로도 물이 새여 시궁창에 서 있는 동무들도 있답니다 더욱이 옆에 쌓여있던 오물이 깨겨듭니다

우리 가로수들도 3일전에 『열성자대회』를 가지고 평양거리가 아름답게 되자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토의하여 보았습니다 도달된 일치한 결론은 평양시내의 전체 인민이 청소사업소에만 의뢰하지말고 한결같이 동원되는 외에더 좋은방법은없다는것이 였습니다

매개 인민반 마다 매 사람마다 자기들의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도시 정리사업을 계속한다면 숱한 운송기자재와 로력도 절약되고 성과는 벗쩍 오른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민반에선 단결해서 잘하는데 어떤 인민반에선 아주 태공합니다 이래서는 아니될것입니다 전체인민반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어 청소에 힘써야합니다 소년대 동무들도 우리 몸뚱이를 에워싸고 뱅뱅 돌며『뭉치자 ! 뭉치는것이 힘이다 !』하고 늘상 외치군 합니다 우리들도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하여 앞으로 잎을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서 오물을 제때에 반출한다는 것은 곧 인민들 여러분들의 문화 부전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빨리 우리의 주위를 깨끗이 하여 주십시요

우리 가로수들은 가지 마다 새파란 잎을 가득 피워 웅장하게 건설 되어 가는 영웅의도시 평양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 여름 철이면 시원히 그늘을 지워 인민들을 상쾌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이 간곡한 호소를 반드시 받아 주십시요

리 춘 자

근심만 하는 지배인

장 진 광 그림

김룡필 지배인—웬일일까? 출근률이 저하되니………
출 근 부—국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종업원들의 생활 개선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며 정치사업을 소홀히 하니까 그렇지요! 어서 종업원들의 생활개선 대책을 강구하시요!

국가량곡으로 선심 쓴 이야기

평양시 인민위원회 국유 건물관리소 서무과장 리호열은 하도「인정」도 많아 세상 사람들이 눈을 둥굴이게한다

눈을 둥구리게 된것은 그 사람에게 머리가 어떻게 되여 붙어 있는가 의문이 나서이다 국가 재산을 가지고 형편 없는「인심」을 씀으로써 자기 머리라도 남에게 떼여줄 지경이면 그가 어째 자기 머리는 남에게 떼여 주지 않고 견디어 왔는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리호열은 지난달에 14일간이나 아무 계출도 리유도 없이 결근한 김기선이가 배급표에 도장을 찍는날 나와서 자기 책상앞에 다가서며 『서무과장 동무…집에 딱한사정이있어서무단 결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떨어져서…』하고 식량표를 내밀자

『어쩌겠오 먹고 살아야지』하고 석장의 식량표에 30번이나 도장을 눌러 주었다

그런가 하면 리영철이도 사정이 딱한 듯이 엄살을 부리며 서무과장에게 제의한다 『과장동무—우리집엔 처제가 와있는데 식량배급을 줄수 없을가요?』 「인심」좋은 서무과장은 서슴치 않고 대답한다 『처제도 먹어야 살지 그렇게 하시요』하고 또 도장을 눌러 주었다 서무과장의「인심—좋은 비법적 행동은 김기선을 비롯하여 28명에게 연 404일이나 배급을줌으로써 273,46 키로 그람의 국가량곡을 부정 배급케 하였다 그리고서도 리호열은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느낄줄 모르고 당연하다는 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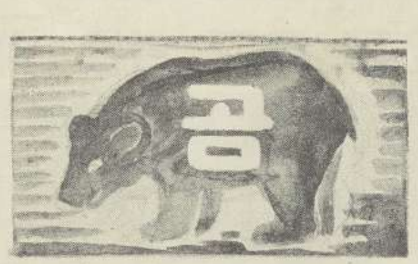
『찍어달라니 찍어 주었지』하고 뻔뻔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장엄한 전후 인민경제 복구 건설이 벌러지고 있는 이때에 귀중한 국가 량곡을 부정배급케하여 랑비시키는것은 엄중한 죄악이다 국가 량곡 배급에 있어서 비법적 행위를 감행하는 리호열이와 같은 사람은 전인민의 재산인 국가재산이 자기의 머리에 못지않게 귀중하다는 것을 단단히 깨달아야 할것이다

그리 아름답지도 못한 머리를 소중히 쓰다듬으면서 어째서 국가 재산을 가지고는 제멋대로「인심」을 쓰는가?

인민들의 규탄은 날카롭다

곰



누구나 아는바와 같이 곰이란놈은 매우 우둔하고 미욱한 놈이다 때문에 무대에 등장 시키고 춤을 추게 할때는 그의 비위를 잘 마추어 주어야 한다

비위를 마춰 주기만 하면 곰은 곧잘 춤을 추며 그 둔하고 육중한 몸으로 씩씩 거리면서 칼날 위에 연상 올라서며 심지어 높이 뛰기 까지 한다

사람가운데도 때로는 바로 곰 같이 둔한 것을 하는 사람이 있다

비위를 마추어 주면 엉뚱한 일까지 서슴치 않는 김덕손 지배인이 그의 하나이다

『지배인 동무! 일자리가 안나고 규격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착암공 김성수동무가 내놓은 새 작업방법을 적용해 보는게 어떨가 하는데요?』

어느날 공사 부장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지배인을 찾아와 제의 하였다

지배인은 자기 딴엔 멋지게 사업을 하는 셈인데 공사부장의 말이 비위에 맞지 않었다

『어쩌고 뭐고 동무사업 태도가 틀렸소! 그런 왕청같은것 아니라도 이만큼 공사를 했다우』

다음엔 로동부장이 들어 왔다

『지배인 동무! 로동 규률과 관련해서 작업 기준량을 검토해 볼가 합니다』

지배인에게 들어오는 부 과장들의 말끝마다 비위가 맞지 않는다

『기본 건설장에야 "도가다식"이 제일 이지 딴게 무슨 소용이 있소!』

김덕손 지배인은 둥굴한 회전의자에 앉아서 생각했다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 부 과장들을 다리고 일할려니 내속이 상하지 않을수 있나』

그는 혼자 중얼 거리였다 몇날이 가기전에 부 과장들을 자기 비위에 맞는 사람으로 제깍 바꾸워 놓았다

새로 임명된 부 과장들은 김덕손 지배인의 비위에들어서 온 사람들이라 있는「수단」을 다하여 지배인의 비위를 마추워 주었다

안된일도—「잘되였습니다」—

작업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때에도 측량 과장에 의하여 허위 숫자가 보고 되였다

김덕손 지배인은 차츰 자기비위에 맞는 일에 춤 추기 시작 하였다

생산도표는「105%」「107%」상승선을 그었다

하로는 김덕손 지배인이 아조 흡족해서 생산률이 제고되는 리유를 측량과장 최덕호에게 물었다

『지배인 동무의 현명한 지도밑에 측량사업이 잘보장되기 때문이지요… 별다른 재주 있습니까?』

지배인의 심정을 잘알고있는 측량과장은 자기의「기술적 수단」을 은근히 자랑하며 아부 하였다

이렇게 그들의 「수단」은 아무 꺼리낌 없이 그대로 작업 실적표에 반영 되었다

김덕손 지배인의 「춤」은 계속『높이뛰기』까지 시작되였으니 자기의 심복 서무부장을 시켜 생일노리 접대비등으로 국가 재정을 10여만원 탕진 하였다

이 내막을 알아 차린 락후분자들은 수군 거리며 경리부로 달려갔다

『가불을 주시요! 누군 주고 누군 안주겠소!』

재정규률은 물란하여져 수개월간에 가불액은 80여만원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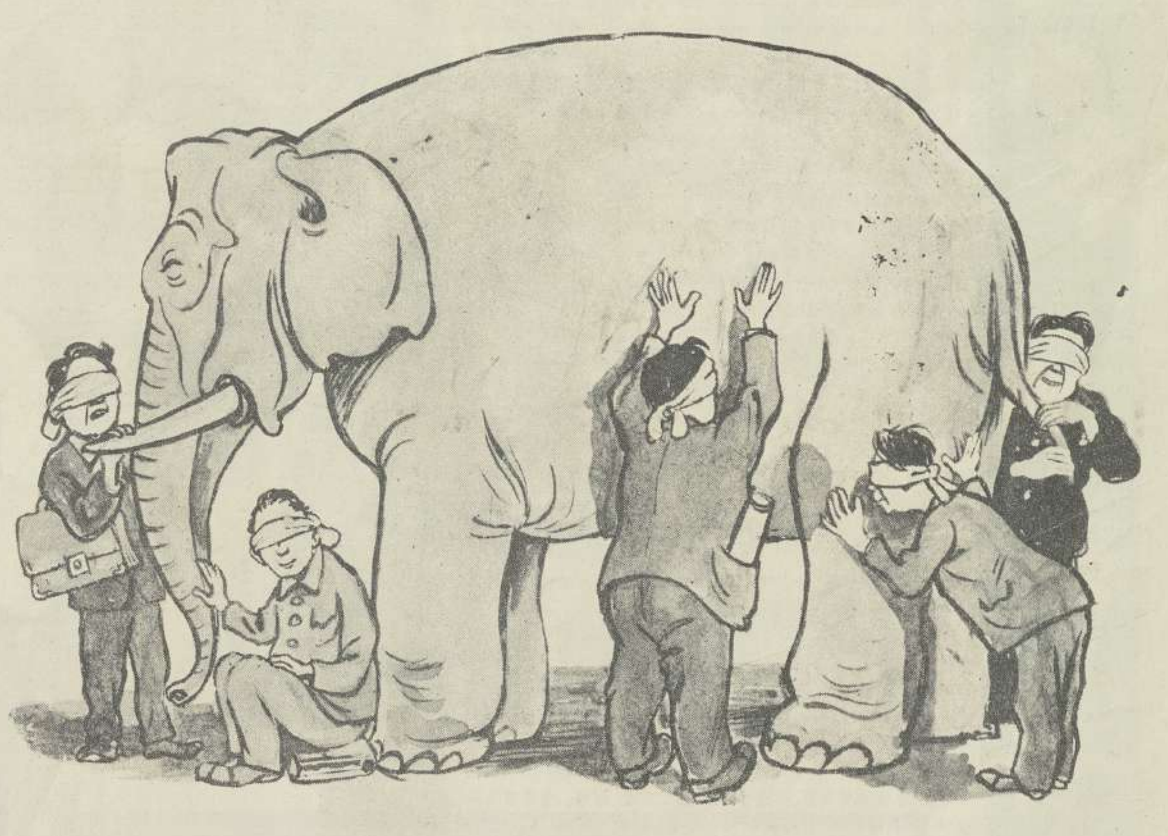
그뿐이 아니라 공사는 규격에 위반되어 진행 되였으며 공사실적은 달마다 떨어져 계획의 80%로 내려 갔고 공사량에 비하여 막대한 로임이 초과 지출 되였다

망탕 놀아먹고 걷어 먹은 곰 같은 지배인에게 인민은 철퇴를 나리지 않을수 없다

리 준 호

소경들의 코끼리구경

『에피소트』적이고 형식적인 검열의 결과는 숱한 검열이 겹쌓여도 문제의 기본고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부분을 어르만지고 전체를 평가 하기도하며 때로는 부분마저도 변바로 알아마치지 못하고 만다 검열수준을 부단히 높히자



—코끼리란 놈은 분명히 바람벽같이 생겼군 그래!
—천만에 기둥같소!
—아니요 틀림없이 소뿔같소!

박 승 히 그림

관료주의자들의 량면성

—또 말성이야? 한바탕 큰소리를 쳐야겠군!

—과연 곤난한 가운데서 이사업을 조직지도 하노라니 저도 몇살 더 늙은것 같구만요 헷 헷 헷…………

산과들에 승리의 새 봄이 왔다

협동로력의기쁨

대동군 와우리 넓은 벌에서는 지금 발가리가 한창이나 협동조합이 조직된 이 마을 농민들은 올봄에 새로 들어온역마를 메워 발가리 한다 그들은 과거소결이 반과 품앗이반작업을 통하여 협동적 집체적 영농작업이 분산된 개별적 영농작업보다 유리하며 우월하다는것을 직접 체험하고 자발적 창의에 의하여 농업 협동조합을 조직했던 것이다

『역마가 부리기 힘들다더니 다루어 나니 소보다못지않아!』

열성농민인 김영심은 이렇게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자기들이 갈아 엎은 발사래를 다시금 본다 깊숙히 보섭을박아 나아가서는 발사래는 꺼무 스럼한 흙덩이가 보스라지며 계속 누비여 가듯 곧추 열을 지었다

이마을 협동조합원들은 이미 한치의 땅도 묵이지 말고 남김없이 복구하여 파종면적을 확장하기 위하여 폭탄자욱을 메우며 계속 휴경지를 복구하는 등으로 130평의 경지면적을 확장 하면서 밭을 간다 관개시설 파괴된 제방 소하천 보뚝도 모두 수리했다 또한 이지방 풍토에 알맞는「애자1호」「수원82호」등 우량 종곡들의 발아시험을 끝내고 지금 논 밭 가리에 한결같이 나섰다 『절 길 곬수로!』

김영심동무는 집탑 을 휑휑들어 보뚝 을 넘군 다음 보섭을 박아 밭을 간다

영심이의 남편은 전쟁이 개시된후 전선에 나갔었다。영심이 혼자서 농사를 짓게되었을때 처음에는 좀 어 려웠다

그러나 마을 농민들은 그전부터 내려오는 품앗이반과 소겨리반에 대한 경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살리며 일손이 모자라는 인민군 후방가족들의 일을 도우며 충분히 농사를 짓겠금 하였다。4, 5호식 서로 힘을 도우며 축력 및 농기구의 공동사용부업의 공동적 경영등으로 협동로동의 기쁨을 느끼며 영심이는 해 마다 더욱 높은 수확을 거두게되였다

오늘 김영심동무는 지난날에 체험한것을 살려 농촌협동조합 조직에 남먼저 참가하여 있는힘을 다해 일한다

『참 빨리도 갈었어! 여럿의 힘이란 놀라워!』

영심동무는 조합원들과 함께 광활하게 펼쳐진 논밭을 한고랑식 힘차게 갈아 엎는다 발가리한 고랑을 따라 한 쪽에서는 올해에도 알알이 굵은 이삭이 고개 숙일곡식의 씨앗을 뿌린다

석 광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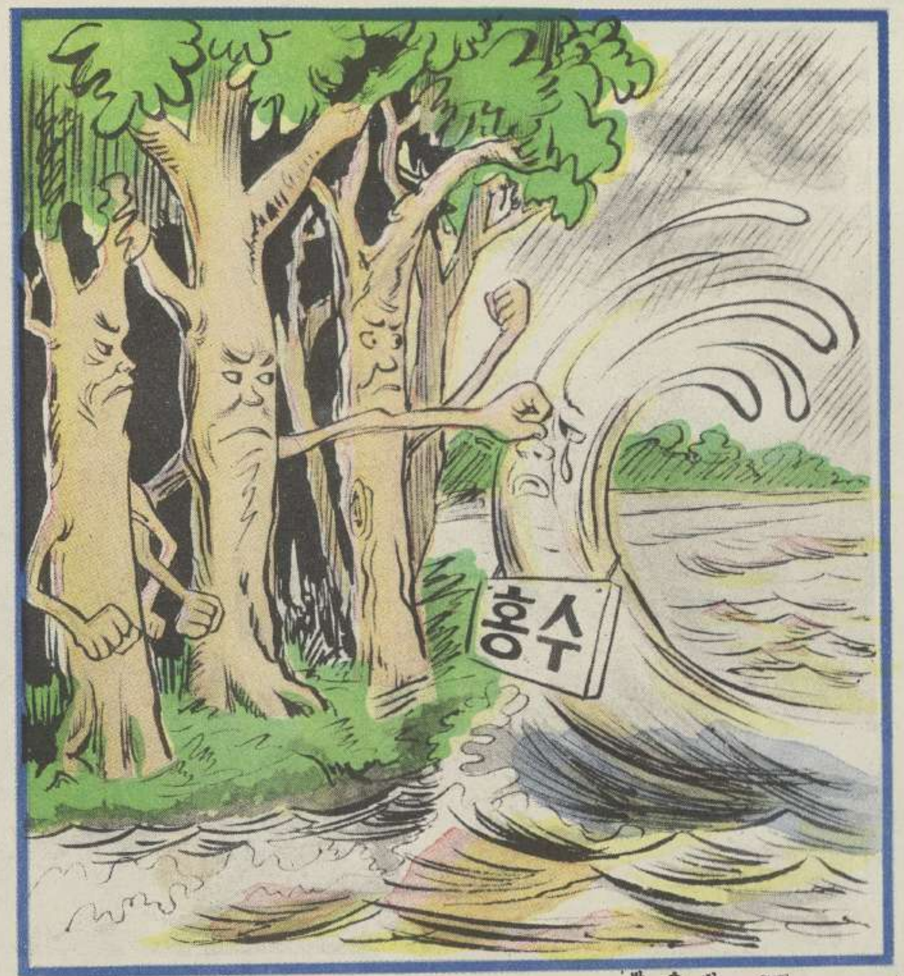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자!

최 한 진 그림

—한치의 땅도 묵이지 말며 경작면적을 더욱 확장합시다
—그럼은요! 선진영농방법도 광범히 도입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제고합시다

조국의 산과들을 푸른 락원으로

식수조림은 홍수도 막고 한재도 방지 한다



박 승 히 그림

땅의 주인된 공화국농민들은 조국의평화적 건설시기에 해마다 농산물의 수확고를 높이였는바 1949년도에는 해 방전인 1944년도에 비하여 128,2%에 달하는 증산을 보장하였었다

가혹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도 공화국농민들은 온갖 곤난을 박차고 더욱 분투하여 1952년도에는 전전 최고수준인 1948년도 수확고 보다도 13만톤의 증산을 전 취하였었다

오늘 공화국 농민들은 전후농촌경리 복구발전을위하여 더 욱 억센 투쟁을 전개하고있는바 특히 금년도는 알곡 총수 확고를 전전수준에비하여 108%로 증산하기위한 투쟁에 궐 기하고있다

절약 저축

박 창 준 그림

—티끌모아 태산된답니다

—그뿐이겠소? 저축은 우리들의 생활필수품을 더많이 생산하게 한답니다

절약과 저축사업은 방대한 국가 건설 및 공업 생산에 필요한 국가 자금 류통에 많은 도움을 주며 우리의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가능성을 지어 준다

지금 공화국 각지에서 인민들의 절약과 저축에 대한 열의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중앙 시설 트레스트 모범 로동자 박완석 동무는 전쟁기간중 매달 자기 수입의 20%를 꼭꼭 은행에 저금하여 왔으며 전후에는 더욱 열성적으로 계속 저금을 하여오고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벌서 그의 통장에는 많은 돈이 축적되여 있다

대동군 대동읍에 거주하는 리봉림 농민은 지난 겨울 살진 황소와 달구지를 새로 샀다

리봉림 농민이 우차를 사 들이게 되기 까지에는 자미있는 미담이 깃들어 있다

즉 그는 우차를 사기위하여 일상 생활에서 절약하여 준준이 은행에 저금 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차를 새로 장만하려는 그의 조급한 욕망을 만족 시킬수 없었음으로 겨울을 리용하여 가마니를 많이 짜 넘으로써 보충하려고 결심 하였다

그는 가마니 증산에서 250%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여기서 얻은 금액을 역시 은행에 저금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지난 겨울 황소와 달구지를 장만하게 된것이다

청진시 해방동에 거주하는 강석명 할머니는 두 아들을 전선에 보내고 학교에 다니는 세 손자를 다리고 생활하여 왔다

강석명 할머니는 일상 생활에서 극력절약하여 짬짬이 저금 하였다가 목돈을 찾아서 손자들의 옷감도 사고 신발도 사고 연필과 공책도 여유있게 사 주군 하였다

할머니는 주름잡힌 얼굴에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은 우리 살림에 큰 미천이 되였다오! 저금이란 참 좋은 일이거든 나라일도 돕고 우리 생활도 유족하게 해주니!』

인민들은 지금 당과 정부와 수령의 따뜻한 배려에 의하여 나날이 생활이 향상되는것을 무한히 기뻐하면서 절약과 저축에 모든 열성을 다하고 있다

석 광 봉

인민학교복구건설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백 인 균 그림

—아저씨! 이거 새로 지을 우리학교 모형도지요? 야! 굉장하군_빨리 새 교실에서 공부했으면!

—응! 이제 아저씨들이 곧 잘지여줄테니 공부잘 해야한다!

사업에서 허영심을 버리라

전후 복구 건설에있어서 건축 트레스트 일군들이 맡은 임무는 크다

그러나 부분적인 일군들은 안일성과 허영심에 사로잡혀 맡겨진 임무를 완수할 대신에 일을 망쳐먹는 사실들이 간혹 발생된다

어느날 저녁이였다 이날도 중앙 건축트레스트 지배인 허경구는 거리에 나섰다

『허선생! 어데로 가시오?』하고 묻는 사람은 바로 개인 청부업자인 김승기 였다

허경구는 속으로 『오—잘 맞났다!』고 생각하였다 김승기는 벌서 그의 뜻을 알아 차렸는지 평일 냉면옥 「조용한」안방으로 그를 모셨다

김승기의 「호의」에 의하여 제법 번뜻하게 한상 잘 차려 졌다

얼마동안 지난후에 축축이 주기가 돌았을때 허경구의 말씨는 매우 부드러워 갔다

김승기의 「호의」에 보답도 할겸 책임맡은 공사로 한번 벗드러지게 축한 기일내에 해 치울겸! 이렇게 생각에 잠겼던 허경구는 즉석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심 하였다

『승기! 자네 한번 큼직한 일을 맡아 해 보겠나!』

이런 구멍을 찾지못해 애쓰던 김승기에게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였다

『아! 허선생이 시키는 일이라면 다른 일을 못하고라도 하지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요?』

귓맛이 으쓱한 김승기는 연송 허경구의 비위를 마추어가며 아부하였다

『응! 의학대학 문 1.100짝인데 한번 빤짝하니 해 보라구! 일이 잘 되면 다른일도 있으니 로임도 주고겸처서 목재 67립방메—터와 솜동복 백벌도 줄테니—』

그후 김승기는 허 지배인의 지시대로 「번쩍」하니 1.100짝의 문을 짜냈다 그러나 이 짜낸 문들이 모조리 병신, 이다

그래도 로임과 귀중한 국가물자를 줄대로 다 주었으니 나중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것인가?

"병신" 문짝들을 짜서 단데 대하여 상부로부터는 책임 추궁이 나려온다

"수완"있고 "명랑"하던 허경구 지배인의 심정은 몹시 침울해지기 시작했다

개인 청부업자에게 맡기어 식은죽 먹듯이 일을 쉽게 해 치우고 한번 「명성」을 날려보려던 것이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쓸데없는 허영심과 안일성에 사로잡혀 허덕이는 허경구 지배인의 과오를 강 건너편 불 구경으로 여기지말고 건축 트레스트 일군들은 자기들의 사업에서 범할수 있는 오류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침으로 복구 건설사업에 더욱 이바지 하자!

(土 파)

등불 밑이어둡다

공화국 민주기지 복구건설이 눈부시게 진행됨을 보고 조선인민의 원수 미제와 그의졸개 리승만 역도들은 가슴이 찢어질 지경으로 아파하며 겁내며 당황해하고 있다 원수놈들은 미친듯이 전쟁을 또 일우려고 발광하며 더러운 졸개들을 계속 잠입시켜 간첩 파괴 암해공작을 시키고있다 경각성을 더욱높이자!

장 진 광 그림

여보시요! 등불을들고 주위를 잘 살피고 있으나 등불밑은 어둡습니다 발아래까지 낱낱이 정신차려 보십시요!

단평

—아! 졸린다! 저금통장은 내주어야겠는데 짬은없구 야단났군!

—창광요업공장제품—

—야! 요놈은 크고 요놈은 작고 모두다 제멋대로 생겼군!

방화책임자—방화도구가 완비되였으니 인젠 안심되는군!

방화도구—그러나 우리임무는 불을 끄는것 뿐입니다「불조심」은 당신네들이 하여야지요.

방화책임자—………

—평양칠성문 국영상점에서— 최 영 근 그림

술한말퍼냈으니 물한말을 넣어야 밑창이 들어나지 않겠지!

날씨는 흐렸다 그리고 출판 사업에 있어서는 아직도 경험이없으나 젊고 재능있는 문학가의 심정도 흐렸다

금방 그는 그의 소설을 열두번째 거절한 출판사에 찾아갔었다 서기는 원고를 도로 내주면서 말하였다『삼백 85페지—하나도 노력이 들지 않았구려! 이것은 상품이 아니요!』

원고를 가슴에 안고 문학가는 터벅 터벅 집으로 향하였다 방조는 아무곳에서도 바랄수 없었다

그런데 뜻 바께 누구인가 내버린 신문 "뉴—욕·헤랄드트리뷴" 한장을 훑어보면서 젊은작가는 눈에 띄우는 큰 광고의 제목을 보았다 즉『당신은 출판 해 보고싶습니까?』그리고 이 관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거기에 나와있다 즉 "미첼손과 K에게로 오시요" 라고

문학가가 곧 번잡한 출판사의 넓고 긴 복도에 나타난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전설" "참회록" "탐정" "과학 서적" 이란 문표를 붙인 문을 지나 가면서 문학가는 "소설" 이란 문표를 붙인 방으로 들어갔다『나는 나의 책에 대하여 상론하고 싶습니다』하며 그는 서기에게 접근하였다

바로 이순간에 소설 책임자실에서 화려하게 옷을 차린 중년부인이 냉큼 나타났다 이 녀자께서는 소위 상류계급의 전형적 모습을 곧 찾아볼수있었다상류계급이 생각 하고있는바에 의하면 자기들보다 높은계급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것이다

『당신이 쓴 이 작품은 대단한 쎈세이숀을 일으킵니다 우리들은 단거번에 독자들을 짙은 생활 현실속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기때문에……』이렇게 부인을 따라나온 소설부 부장은 말하였다『요는 간판에 대하여 고려해야하오간판에 대해서!』부 인은 큰 소리 치고사라졌다

이 사이를 리용 하여 젊은 작가는 책임자에게로 가까이가서 자기를 소개한후 진실한 생활의 한토막을 묘사한 그의 가장 고귀한 소설을 가져왔다는것을말하기 시작 하였다

『저 그런데 당신은 왜 우리를 찾아왔소?』하고 책임자는 피웃었다『왜라구요?』 문학가는 실망한 낯으로 대답하였다 「출판할려고 왔지요!』『그런데 우리들은 작가자신들이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고쳐 써서 애매할수 있는 작가들의 것 만 출판 합니다』

『당신들이—그들을 대신 한다구요?판다구요!……』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여 문학가는 다시금 질문 하였다

『나는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혹 당신은 글을 웬만큼 쓸런지 몰라도 아직 읽을줄을 모르는구려』하고 아주『점잖』게 책임자는 말을 던지고 손가락으로 광고를 가르켰다『자 바로 여기에 "미첼손과 K가 당신들을위하여 "책" "전설 "과학 서적" 을 쓴다는것이 뚜렷이 써워있지않소? 당신은 이자방금 작가로써 유명하여지는것을 원하여 딸라를 지불하고 정말 유명 하여진 부인을 보지않았소? 래일 다른 부인이 학자로써 유명하여지는것을 희망한다면 딸라를 지불하고 이름이 날것이요 만일 돈만있으면 누구나 얼마든지 이름을 떨칠수있소 지금 이름 알려지지않은 백명의작가가방종한성격 과 많은 딸라를 가지고있는사람들을위하여우리에게서일하고있소 당신도 백일명째의 이름알려지지않은 작가로 되는것을 희망한다면 원고를 남겨두시요』

『정신 병원이군!』젊은 작가는 자기도 모르게 외쳤다

뛰여 나가면서 그는 책임자의 비웃는목소리를 들었다

『두고보자 ! 네까짓놈이 문학에서 성공을 하나 !』

두·우만스끼 (한동신 역)

손들을 씻으려고 시험해본다

유·엔 총회에서 미국대표는 미제침략자들의 조선에서의 무서운 만행의 흔적을 음폐하기위하여 미국포로들에 대한 소위 "만행" 이란 중상적인 문제를 일반총회에서 로의할것을 제의하였다

꾸꼬리닉스 그림

이 버릇은 미제의 상투수단이다 조선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남조선에 전략물자를 날러들이고있는 놈들은 번번히 떠들기를 우리측에서 전략물자를 반입하는것같이 중상함으로써 자기들의 죄행을 감추려 하고 있다 (활살편집부)

미제와 리승만도당 학정하의 남조선 녀성들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이 도발한 침략전쟁 행정에서 집과 재산과 가구들을 원쑤들에게 파괴 략탈 당하고 인권을 유린 당한 남조선 녀성들의 생활은 이루다 형언할수없이 처참하다

강도배들은 녀성들로부터 로력의 권리와 일터를 빼앗았으며 농촌녀성들은 정든 고향땅에서 쫓겨나 타향에서 류리걸식을 하고 있다

미국의「신사」들과 리승만의 졸개들은 녀성들을 녀성으로서는 가장 참을수 없는 인간 지옥속으로 몰아 넣고있다

특히 남편과 친척과 어린이들을 잃은 녀성들은 비참한 구렁이에서 헤매고 있다

× × ×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남조선 출판물들이 발표한 리승만 괴뢰정부의 극히 축소한 숫자에 의하여도 괴뢰정부 사회부에 등록된 인원수는 30여만명이며 그들에게 달린 아이들 (13세 미만)이 51만 여명이며 미등록 부분까지 합하면 총수는 백만을 훨신 초과할 것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은 남조선의 청장년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강제 징발한 후 이들의 가족들에 대하여는 아무러한 대책들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 로력과 직업을 가지고 서도 살아 나가기가 어려운 오늘의 남조선 현실하에서 녀성 혼자의 몸으로써 살아나가는 그들의 처지가 어떠 하리라는것은 상상키어렵지 않다 남조선 녀성들의 참상에 대하여 남조선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이들은 사방에 흩어져 룸팔이를 하거나 빨라장사 행상들을 하여 그래도 떳떳하다할수있는 자활의 길을 택하는가 하면 대부분이 작부 그리고 륜락의 길을 걷고 있다』(조선일보)

괴뢰정부의 소위『유·엔 한국 대표』와『주미 특사』를 력임한 조병옥이란 자의말에 의하면 이와같이 륜락의 구렁속에서 헤매는 녀성들의 수는 현재 전국을 통하여 15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 × ×

이상은 주로 도회지에 사는 녀성들의 생활을 두고 한말이다 농촌 녀성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다 농촌 녀성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생산한 쌀을 원수놈들에게 송두리채 략탈 당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아 선상에서 신음하고 있다

남조선 녀성들 중에서는 극심한 생활고에 견디다 못하여 음독 자살 투신자살하는 수가 늘어 가고있다

리승만 괴뢰정부에서는 작년도부터 4개월도 못되는 동안에 경기도 한도에서만 143명의 자살자가 나타났다고 발표한바 있다

남조선 녀성들이 자기들을 도탄속에서 신음케 하고있는 미제와 리승만 도당의 폭정을 반대하여 공화국의 통일에 안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박 필 수

날이갈수록 비참해가는 남조선 녀성들의처지

백 인 군 그림

—양캐들 나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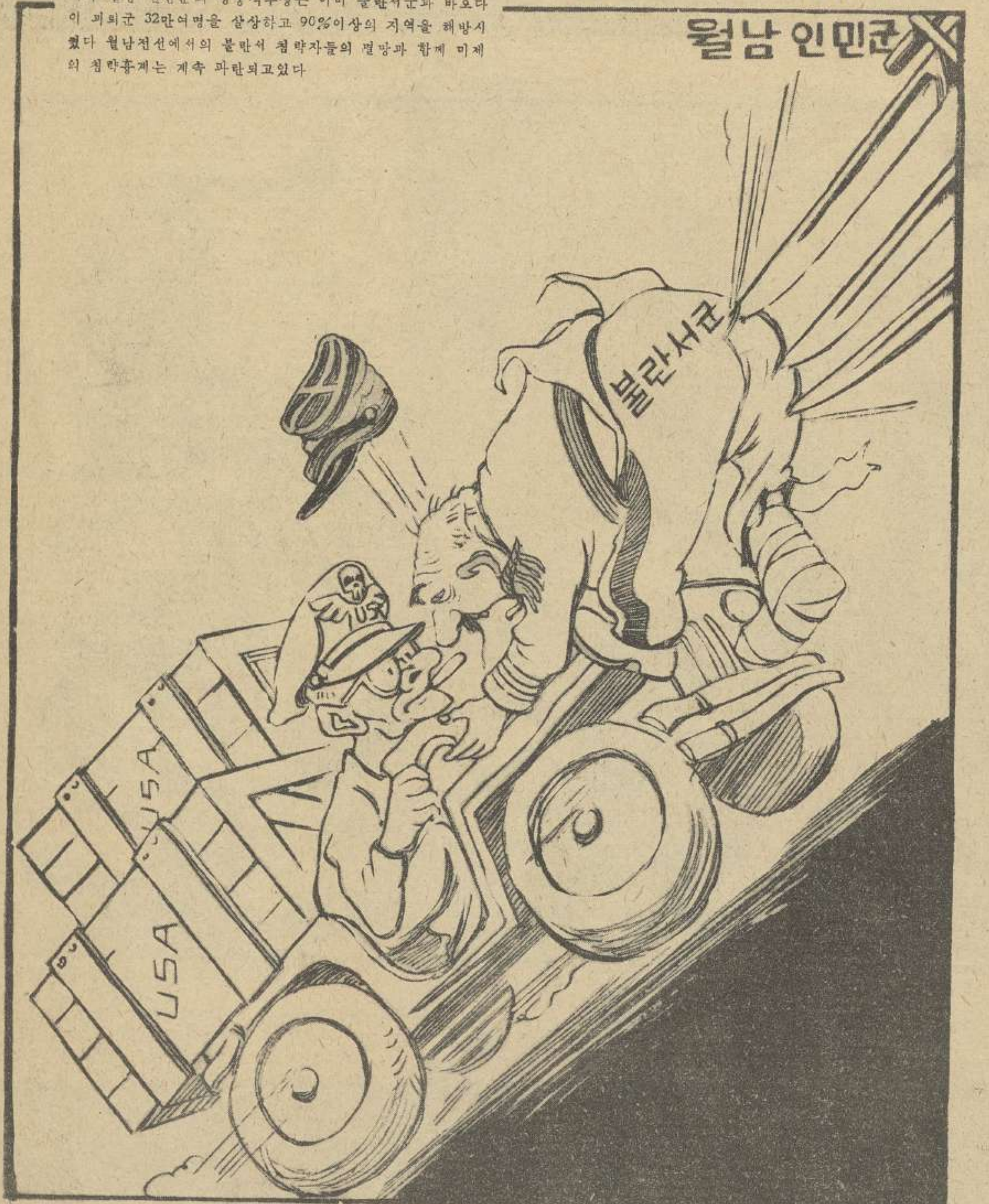
백인군 그림

—악귀같은 놈들! 네놈들은 부모처자도 없느냐!

미제 양캐놈들은 자기들의 대포 밥으로 남편과 아들들을 강제로 끌어내어간후 아무 생활상 방도는커녕 도리여 녀성들에 대하여 가장참을수없는 박해와 모욕을 주고 있다 이것이 소위 미국식"인도주의" 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에서 의 전쟁은 우리의전쟁이다」라고 로골적으로 떠버리면서 불란서 침략군과 바오다이 괴뢰군대에 대한 무기와 군수품공급을 더욱 강화 하고있다 그러나 월남 인민군의 영웅적투쟁은 이미 불란서군과 바오다이 괴뢰군 32만여명을 살상하고 90%이상의 지역을 해방시켰다 월남전선에서의 불란서 침략자들의 멸망과 함께 미제의 침략흉계는 계속 파탄되고있다

월남 전선에서



불란서군 지휘관—아이구! 사람살리우!
미군고문— 그래 우리「원조」하지않소?
불란서군 지휘관—글세 「원조」는 작구하는데
피마를날이 없으니………

장 진 광 그림

국제 단신

죽기전에는 모르리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제10차 범미 회의에서 미 국무장관 덜레스는 거품을 물고 떠버리었다

『공산주의 위협』이 라틴 아메리카를 휩싸니 『반공 결의안』에 서급히 조인 하라고…… 라틴 아메리카 제국가의 외상들은 눈알만 굴리며 잠자코 앉아 있었다

아무리 뒤살피어도 덜레스가 떠드는 그런『공산주의 위협』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3월 9일에는 마침내 용감한 과테말라 외상이 참다못하여 질문을 드려댔다

『덜레스씨여! 묻노니 공산주의란 무엇인가요?』

덜레스는 가슴이 덜컥 하였다

어쨌던 무어라고 답변은 해야 되겠기때문에 잠시 눈알을 굴린 그는 별안간 눈살을 찡그리면서 벌컥 화를 내었다

『미주의 어떤 공화국의 대외문제가 저런 무지한 사람에 의하여 처리된다면 그것은 우려할 일이다』 그러나 침착한 과테말라 외상은 칼날같이 싸늘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과테말라 인민은 나에게 위임하기를 『공산주의 위협이라는 말은 미국이 과테말라 내정에 대한 간섭을 은폐하려는 연막임을 성명하라고 하였소 그렇지 않거던 현명한 덜레스씨여! 답변하라 나시금 묻노니 도대체 공산주의란 무엇인가요?』『·········』 덜레스의 목에선 콩알 주어먹은 숫닭과도같이 괴기소리만 들렸다

『공산주의 위협』을 그렇게도 떠들던 히틀러도 대답못하고 총장이된 『문제꺼리 숙제를 덜레스더러 또 대답하라니 대답이 맥히는것도 당연한 일이다

방청석에 앉았던 젊은 기자 한사람은 코웃음 치며

『죽기전엔 대답못하리라····』

× × × × ×

월남인민들의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 디엔 비엔 푸 전선… ……열대지대의 지하실에서도 온 몸에 소름이 끼쳐 떨고있는 불란서군 사령관 카스트리 대좌앞에 한 병사가 눈알이 뒤집히 덤비며 뛰여들었다

『사령관 각하! 취사를 하려니 장작이 떨어졌습니다』『뭐이 그것까지 날더러 어떻게 하란말이야? 자식,기맥혀…』

『각하 디엔 비엔 푸 구역내엔 장작을 얻을곳이 없습니다』

이마위에 두손을 대고 두거름 세거름물러선 카스트리는 급작기 무전사를 불렀다 『비군 비행대에 무전을 칠것 장작을 보내달라고…』 『나팔탄은 그만두고 장작을 수송하여 주기 바란다 라고 말입니까?』 『거지식 나팔탄도 더많이 장작도 미군 비행기도 더많이 이렇게 치란 말이야』

얼마후부터는 미군이 조종하는 미군폭격기 B26이 월남인민을 반대하여 야수적인 폭격을감행 하기 시작하였다 나팔탄이 터졌다 한편

미국 해리콥타는 장작을 떨구었다 오후 4시에야 겨우 카스트리앞에 조밥상이 차만되였다 허대를 눈꾸어 매며 카스트리는 작숭 쉐인 목소리로 중얼거리 였다

『내 목숨이 몇일이나 더 붙어다니겠나?신이여! 내군대를 어떻게해야 월남인민군같이 강하게 할수있나 말이요?』

『·········』

카스트리는『신』의 대답을 언제든지 못받으리라! 그것도 그럴것이 산사람에게 물었어야만 『불란서 인민을 위하여 평화를위하여』행동할때라고 곧 대답이나왔을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카스트리에게는 대답을 줄것이다

벽 우

미국식 원조

—자! 원조할테니 광석 많이 캡시다

—그렇지! 그렇지 미국원조 당신들 광석
캐게했소! 때문에 광석우리 가져가오

남조선의 암흑상

세계는 광대하며 이 속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은 각이한 생활양식과 각이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쏘련 인민들을 위수로한 전세계 모든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어디서 살던지 또한 무슨 일을 하던지 인민들의 행복과 평화를 념원하며 인류의 친선과 단결의 리념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즉 전체 인류가 기아와 빈궁 노예적 종속 관계의 질곡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와 행복의 세상을 누릴수 있겠금 하려는 동일한 희망을 지니고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를 위시한 제국주의자들은 략탈과 살인 인간증오 따라서 인간의 정신을 더럽히며 그의 모든 진실한 인간적 면들을 말살하며 그에게 저급한 퇴폐 주의사상을 강요하려고 날뛰고 있다 그들은 인간에게 침을 뱉으며 노예화의 길을 강요한다 그리고 계통적 략탈로써 사람들이 자기 의 긍지를 저바리고 동물적 공포 및 염세주의에 빠지게 하려고 날뛰고 있다 놈들은 전쟁방화를 위한 무기와 폭탄을 생산하기에 광분하고있다

× × ×

이와같은 미제의 발악은 남조선에서도 엄중한 사태를 비져내고 있다

남조선 로동자들은 아무러한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하고 기아 임금에 얽매여 미군의 채찍밑에 10—12시간의 노예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다 무보수 무기한의 강제로동을 당하고 있는 징용 로동자들의 생활참상은 더 형언할수 없거니와 사소한 부주의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로동자 들을 거꾸로 매달고 리유도 밝히기 전에 총살하는 인종적 멸시와 야수적 만행이 도처에서 벌러지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곡창이였던 남조선은 량곡의 무제한한 략탈로 말미암아 인민들은 기아와 아사에 허덕이고 있다 1952년도에 이미 남조선 량곡 부족량은 700만석에 달하였으며 1953년도에도 340만석의 량곡이 부족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지시에 의해 리승만역도들은 미곡 150만석을 일본에 수출할것을 결정하였으며 고용병들의 군량미 보장을 위하여 380만석을 강제공출시킬것을 결정하였다 농민들은『농지 개혁』에 의한『년부 상환미』와『토지 수득세』『강제 공출』등 현물 량곡의 략탈과 수백종에 달하는 가렴잡세로 여지없이 략취 당하고있다 그날 그날의 끼니를 이을수 없어 허덕이는 농민들은 곡식 이삭이 채 패기도 전에 청초를 팔아버리지 않을수 없게되여 쌀 한가마니에 6천환할때 1.500환이라는 헐값으로 지주 자본가 협잡군 놈들에게 빼앗겨 왔다

그리고 1.400만의 전재민 실업자들은『공동 묘지』라고 불리워 지는『죽음의 수용소』에서 신음하며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기한으로 수 없이 죽어가고 있다 특히 50만을 넘는 전재 고아들과 100만을 넘는 과부들과 그리고 수만의 소위『상이군인』들이 모든 생활토대와 수단을 박탈 당하고 걸식과 타락과 아사에서 헤매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형편은 바로 이러하다

× × ×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의 두터운 배려아래 나날이 자기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있는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생활을 동경하는 남조선 인민들은 놈들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항거하고 있으며 조국의 자유와 통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애국적 인민들은 인류의 원수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새 침략 전쟁 도발 계획에 심중한 타격을 주며 손에 무기를 들고 계속 남반부 각지에서 투쟁의 불길을 올리고 있다 (원 철)

取扱店 學友書房

백주에횡행하는 미제날강도

미제침략자들은 경복궁내 박물관에서 1,300여점 덕수궁내 미술관에서 6,000여점 민족박물관에서 300여점 리왕직 아악부에서 1백여점 경주박물관에서 125점등 무려 7,800여점의 국보를 이미 략탈해가고도 부족해서 최근 리승만 역도들을 사수하여 소위 「국보해외 반출전시안」이라는 것을 괴뢰국회에 제출케하였다 이안은 경주국보를 비롯한 1만8천 여점의 조선인민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하와이 뉴욕 쌘프란씨스코 등지에「전시」한다는 미명밑에 남조선에서 국보를 또 공공연하게 략탈하려는 흉책인 것이다

백 인 균 그림

상투적인 략탈방법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전쟁비용과 인민학살비용을 조달하기위하여 소위「국채」에 허울좋은「산업부흥 국채」라는 명칭을 달아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남반부 인민들을 더욱 혹독하게 략탈하고 있다

장 진 광 그림

미제가 조작하려는「태평양 동맹」

RETURN TO
THE LIBRARY OF CONGRESS
DIVISION OF ORIENTALIA

장진광 그림

DIVISION OF ORIENTALIA

발행소 활살 (시사만화잡지) 사 발행 1954. 3. 15
책임 주필 장진광 인쇄소 평양특별시 국립종합인쇄소인쇄 1954. 3. 25
총배포처 체신성출판물관리국 ㄱ…50217 (정가 90원)